

5) 외래계

(1) 천리교

천리교는 일본의 무녀 중산미기(中山美伎, 나까야마 미끼)가 1838년 일본의 내량(奈良)에서 창교했다. 여교주 미기는 농촌에서 태어난 여인으로 현철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41세 때 어느 날 남편과 장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 '신대'를 잡을 사람이 없어 그녀 자신이 대를 잡고 기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때 신탁을 받은 것이다. 신탁을 받은 미기는 자신이 곧 원신(元神)이요, 진리의 신이며, 십주신(十柱神)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신은 '아버이신'이기 때문에 원신이 의탁하고 있는 그녀 자신이 곧 아버지라 하면서 자신이 삼십세계(三十世界)의 전 인류를 구제한다고 하였다. 그때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녀를 천리왕명 아버지신으로 신봉하였다. 이때부터 천리교의 교단이 세워졌다. 천리교가 포교를 시작할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황국의 국조신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구속, 박해를 하여 20여 차례 투옥하기도 했으나 그녀의 불굴의 신념으로 마침내 일본 내량현 내량시에 천리교 본부를 두고 교세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천리교가 한국에 처음 유입된 것은 1900년 일본인 택전(澤田)에 의하여 부산에 처음 포교되었으며, 1903년 서울에서 포교가 시작되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내선동경회(內鮮同慶會)'를 조직하여 친일에 앞장선 일도 있었으며, 일본 신주(神主)를 모셔 일본 황실의 평안을 비는 등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 그러다 한민족의 반감을 사게 되어 8·15해방 후 한때 포교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뒤 1948년 일본인이 운영하던 것을 한국인들이 천경수양원(天鏡修養院)으로 개칭하고 미군정 공보처에 등록하여 포교를 했으나, 당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활동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 때 대구에서 김진조(金振祚)가 '대한천리교연합회'라는 이름 아래 포교하였는데, 여기서 서울파·부산파·대구파·제주파 등으로 나누어졌다. 1954년 서울로 본부를 이전하고 대구에서 김태봉(金太峯)이 포교를 계속하여 현재의 대구 대안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로 이전한 천리교연합회는 대한천리교총본부로 개칭하여 김진조가 교통이 되어 1961년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공부에 등록하고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지역에 여러 지부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가운데에서 세력이 가장 큰 교회는 부산 영도의 원남성교회, 진해교회, 대구의 대안교회, 제주의 대해교회, 서울 청파동의 청일교회 등을 들 수 있다. 원래 대한천리교 본부를 서울 신당동에 두고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포교하였는데 현재는 대한천리교에서 이탈한 김기수의 대한천리교연합회가 자기교단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의 천리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상 서울에 청담동파·대구파·부산파(서울 신당동파와 같음)·진해파·제주파 등 5파로 분립되어 있다.

천리교의 신앙 대상은 천리왕님인 아버지신이다. 천리왕님은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주재하며 섭리하는 주체로서의 원신이며, 실신(實神)이며 아버지신님이다. 그리고 원신은 '십주신'이라고도 한다. 십주신은 원신의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신의 속성으로 분류된다. 십주신은 10종의 신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우주의 수기(水氣)를 관장하는 인간에 있어서는 신체의 수기를 보호하는 신
- ② 우주의 화기(火氣)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간의 체온을 조절하는 신

- ③ 인체의 골격을 보호하는 신
- ④ 인체의 피부, 근육을 보호하는 신
- ⑤ 음식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소화기, 비뇨기를 보호하는 신
- ⑥ 호흡기를 보호하는 신
- ⑦ 이 세상과 인연을 끊은 후의 죽음을 관장하는 신
- ⑧ 출생을 관장하는 신(인명을 연장하고 생장을 도모)
- ⑨ 종자를 보호하는 신으로 자손을 잇게 하는 남신, 이좌군기명(伊佐郡岐命)이라고 함
- ⑩ 인간의 종자를 길러내는 여신으로 이좌군미명이라고 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낳게 하는 창조 의 기능신이다. 따라서 천리왕님인 어버이신은 창조신이다. 이렇게 보면 무교에서 중산미기를 천리왕님인 어버이신으로 신봉하는 것은 교주를 창조신으로 신봉하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천리왕님인 어버이신을 통한 천리의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어버이신의 의사(意思)인 ‘양기세계(陽氣世界)’, 즉 천인공락(天人共樂)의 이상세계의 즐거운 생활을 현실에 구현시킴을 신앙의 이상으로 한다. 이 양기세계의 건설은 신의 현신인 어버이신의 행적에 있으므로 이 어버이신의 마음을 체득, 수양하기 위해서는 ‘삼개훈(三個訓)’과 ‘팔계명(八戒銘)’을 신조로 한다. 또한 천리왕님을 모신 신단 앞에 옥수와 삼신기, 그리고 음식을 차려 놓고 삼개훈과 팔계명과 수양송 등의 신락가를 부르며 북과 종소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삼개훈이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자.”이다. 팔계명은 “탐내는 마음을 버리자, 인색한 마음을 버리자, 편애하는 마음을 버리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자,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자, 욕심내는 마음을 버리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일연정종 창가학회

일연정종은 일본의 신흥 불교단인 일연종 9파의 하나로 일연종의 개창자 일연의 제자 일홍에 의해 개종되었다. 그런데 일홍이 일연정종을 개종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37년 목구상삼랑(牧口常三郎)에 의해 신도들의 모임인 ‘창가교육학회(創價教育學會)’가 만들어지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창가’라는 말은 불법의 진가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연정종의 불법을 크게 편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일본에서 1947년 종교단체로 등록한 뒤, 1951년 호전성성(戶田城聖)이 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이때까지의 교세를 살펴보면 처음 목구상삼랑 당시 1,000세대였던 것이 호전성성대에 와서는 무려 10만 세대에 이르렀다. 호전성성이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고 1960년 지전대작(池田大作)이 3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170만 세대의 교세를 확보하였고 오늘에 이르러서 일본 국내에서도 200만 세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재일교포에 의해 2~3개 포교망을 통하여 유입되었는데 현재 국내에는 10여 개파로 분립되어 독자적으로 자가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순천시에는 한때 수천 명에 달하는 신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신도 가운데 90%가 노동자와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앙 대상은 본존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만다라이다. 본존이란 원래 ‘구원실성석가모니불

(久遠實成釋迦牟尼佛)'을 의미하는데 이 교단의 본존은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문구와 일연이라 쓰여진 문자를 중심으로 나무다보상여래(南無多寶像如來)·석가모니불·사행보살(四行菩薩)·제천왕(諸天王), 그리고 제신명(諸神明)·팔대용왕(八大龍王)·일본의 국조신 천조대신(天照大神)과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 등이 나열되어 있는 만다라를 말한다. 여기서 『나무묘법연화경』을 제목(題目)이라 부르며, 일연을 인본존(人本尊)이라 한다. 곧 제목은 말법시대(末法時代)에 나타날 법본존(法本尊)이며 일연을 말법시대에 출현한 인본존이라는 것이다. 과거 정법(正法)시대에 나온 석가모니불의 설법이나 등상(等像)을 신앙한다는 것은 아무런 권화(權化)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믿음은 일연이 일본의 국조 천조대신 앞에서 석가모니불상을 불사르고 그 자신이 만든 만다라를 본존불로 모시게 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밖에 만다라에는 부동명왕(不動明王)과 애염명왕(愛染明王)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들은 악마와 번뇌를 항복(降服)받고 대자대비의 법문을 깨닫게 하는 대일여래(大一如來)라 한다. 또 만다라의 네 귀퉁이, 즉 동서남북에는 사천왕의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이들은 악마계와 본존 그 자체를 수호하는 신이다. 용수(龍樹)와 천태(天台)가 인도와 중국에 있어 정법과 상법을 일으킨 대덕들로 대표된다면, 일연은 일본에서 말법을 연 대덕으로 대표된다. 천조대신과 팔번대보살은 일본국을 열고 그들의 무운(武運)에 의해 일본이 장구하게끔 해주는 수호신이라 하는데, 이 만다라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 대상이 되고 있다.

신행은 앞에서 말한 본존을 신앙 대상으로 하여 제목인 『나무묘법연화경』을 일본말로 '남묘호령계교'라 염송하며, 계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본존·제목·계단을 삼대비법(三大秘法)이라 한다. 일연을 인본존으로 신앙하는 것은 석가불은 정법시대의 불이기 때문에 말법시대의 구세불로 출현한 구원실성의 불을 신행하여야만 구원을 얻고 즉신성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을 염송하는 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말법시대에 있어서 일체 중생의 심전(心田)에 불종을 심어줌으로써 즉신성불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중생들로 하여금 본불과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곧 제목을 염송하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부름에 응하는 것처럼 중생들의 실생활에서 본존불의 무한한 공덕이 임한다는 것이다.

계단의 성립이란 교단에서 지키는 계율을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어 그들에게 인본존의 무한한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단의 성립에는 이단(理壇)과 사단(事壇)이 있다. 이단은 신자들이 계율을 지켜 설법에 도달하는 즉신성불의 경지를 의미하며, 사단은 일신으로부터 가정·국가 전체에 범열이 미치게 된다는 이른바 왕불명합(王佛冥合)의 경지이다. 이것이 일연정종의 목표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신자들은 창제(唱題)와 절복(折伏)을 실천하며 왕불명합을 이루고자 정치집단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한다. 그리하여 현재 공명당(公明黨)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 어느 때인가 정교일치, 곧 왕불명합을 이룩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이 제목의 염송이 한때 한국 포교에 부당한 문제가 되었지만 이들은 일연이 부르던 어음(語音)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국내 교단에서는 본존 가운데 일본 국조신인 천조대신과 팔번대보살을 빼고 우리나라 국조 단군신을 기록하여 모시고 있다. 한편 이들은 동방(일본)을 향하여 제목을 염송하고 절을 한다. 이것은 마치 일제 때의 신사참배와 같은 행위이기도 하다.

(3)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은 1931년에 이 종파의 세계대회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 전에는 ‘천년왕국의 여명’, ‘만국성서연구협회’, ‘등대사(燈臺社)’ 등으로 불렸다. 여호와의 증인이라 명칭은 『경경』 이사야 43장 10~12절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 교파는 찰스 테이즈 럿셀에 의하여 1872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1884년에 법적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이 교파는 모든 기성교회를 마귀의 것이라 부정하며 자기들의 신조를 내세운다.

이들의 신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그리스도를 피조자로 보고(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 예수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였거나 새로운 영체를 입은 것이라 하며, 죄의 값은 사망이며, 천지창조 후 7만 년부터 그리스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럿셀의 계산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때로부터 7만 년은 1872년이며 이는 여호와의 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처음 이 교단에서는 1914년이 세상의 종말이라 예언하였는데, 이 날짜는 그뒤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얼마 전에는 1984년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 의무, 특히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여 말썽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징집을 거부하여 법정 심판을 받았던 신자들이 있다.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12년으로 홀리스터 선교인이 내한하여 문서 전도를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한다. 이 교단은 그뒤 주로 문서 전도에 의하여 전도를 계속하였는데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반항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이 투옥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 미국의 본부와 연락이 재개되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현 한국 대표인 도날드 L. 스틸 형제 부부가 내한하여 재건을 서둘렀다. 한국전쟁 중 교세를 크게 확장하여 1951년에는 대전·군산·대구·전주·부산 등지에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이 조직되었고, 1953년에는 직접 전도에 나선 전도사가 400여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현재는 전국의 각 회중에서 전도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호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있다.

이 교파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순천시에 포교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 순천시에 교회가 있으나 자세한 교세 역시 알 수 없다.

(4)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몰몬교)

일명 ‘몰몬교’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1830년 4월 6일 미국에서 창설되었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미국 병사들에 의해 전래되었다가 1956년 6월 3일 ‘한국지방부’가 설치되었고, 1962년 9월 재단법인 인가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가 천사의 계시로 받았다는 『몰몬경』을 유일한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신관은 우리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도 같은 피조물이며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다신론을 믿는다. 구원은 몰몬교도가 되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며, 인간은 세 종류의 천국에서 지내게 된다고 한다. 제1의 천국은 복음을 거절한 이방인이 살게 되며, 제2의 천국에도 몰몬교의 교리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제3의 천국은 몰몬교도들만이 산다는 것이다.

몰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실현하여 요셉 스미스는 50여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2세 교주 부리감영은 27명의 처와 56명의 자녀를 거느렸다. 오늘날에는 표면상 일부다처제가 금지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계속 따르는 신도들이 많아 솔트레이크시에만도 1만 명의 일부다처제

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미국에 '시온성'이 건립될 것이며, 시온성이 건립될 곳은 바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라고 한다.

한국 본부를 종로구 청운동 7번지에 두고 있으며 부산·대구·광주·전주·인천·목포 등에 45개 소의 교회당과 549명의 전도사가 있고, 신도수는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몰몬교에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다. 전도와 봉사업무가 일체 무보수제이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자비로 부담하여 의무적으로 2년 동안 전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교세의 확장이 놀랄 만하다. 미국 본부에는 예언자, 선지자, 계시자가 되는 교주가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 아래 두 사람의 보좌관이 있다. 이들 세 사람은 대신권 소유자라고 하며 전 세계 몰몬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아래에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아래 70명의 정원회가 있다.

포교상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일부다처제이다. 초기 몰몬교의 지도자들은 교주를 위시하여 2세 교주는 수십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되자 1890년 이를 표면상 금지시켰다. 그러나 제2세 교주였던 부리감영이 "신의 아들이나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다처제를 실현하는 사람뿐이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많은 영적 자녀를 낳음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지금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 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유타주의 법무장관 특별보좌관인 윌리암 로저스에 따르면, 유타주에는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일부다처제 가족이 살고 있으며 그 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교리는 가나의 혼인 잔치가 바로 예수의 결혼식이었고, 예수에게는 3명의 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수가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신인 아담과 마리아가 실질적인 성교를 통해서 출생했다고 주장한다.

(5) 국제도덕협회

국제도덕협회는 일관도의 한 분파이다. 일관도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흥종교이다. 유·불·선·기독교·회교 5교의 교리가 하나의 도에 일관한다는 뜻에서 일관도라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미륵불 출세를 중심 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교단이 한국에 전래된 것은 해방 직후인 1947년이므로 한국 신흥종교의 계통별 분류에서 외래계에 넣어야 마땅하나 한국에 유입되어 '도덕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지고, 또 여기에서 도덕초기회·대한국도덕회·국제도덕협회·신령도덕회·도덕성회 등의 분파가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도덕회, 신령도덕회, 도덕성회는 중국인과 연계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한국인의 독자적인 종교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외래계에 넣지 않고 한국 종교의 한 계통으로 분류하여 일관도계라 한다.

일관도를 처음 국내에 들여온 사람은 중국인 이덕복(李德福)·장단기(張端基)·김은선(金恩善) 3명이다. 이들은 교단에서 삼전인(三傳人, 三前人)이라 한다. 이 3명은 일관도를 전입하여 서울을 근거지로 각자 포교를 함으로써 전입 당시부터 3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던 것이 1952년 도덕초기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후 김은선이 중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후계자 김복당(金福堂)이 천명의 계시라고 하면서 교권을 한국인 제자 손우헌(孫佑憲)에게 위임, '국제도덕협회'라는 교명으로 충무로에 본부를 두고 회장에 한국인 신숙희(申淑姬)를 임명하고 교단의 실권을 김복당 자신이 쥐었다.

이것을 본 장단기도 대한국도덕회라는 자기 교단을 만들어 한국인 오성근(吳聖根)을 회장으로

명하고, 실제적 실권은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도덕초기회는 통합된 지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3개 교단으로 분열하게 되었다. 도덕초기회를 이끈 손우현은 교단의 본부를 부산을 거쳐 대구에 두고 1945년 교명을 도덕회라 개칭하였다. 그후 1961년 도덕회의 여신도 강순이는 신령도덕회라는 명칭으로 계룡산에 본부를 설치, 분립하였다. 또 도덕회의 회장 손우현은 1968년 회장직을 사임하고 대전에서 송옥근(宋玉根)과 함께 도덕성회를 조직하여, 일관도계는 5파로 분립하게 되었다. 뒤에 도덕회는 양우용(梁佑瑢)이 회장이 되어 대구 신천동에 본부를 두었다가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포교하고 있으며, 국제도덕협회는 흑석동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인 포교망을 가지고 있다.

국제도덕협회의 교단 연혁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근래에는 총재인 김복당의 지나친 카리스마적 군림에 반기를 든 젊은 혁신파에 의해 교권상쟁이 일어났다. 이때 김복당은 간음·사기·재산탈취 등의 혐의로 법정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현재 법정 계류 중이다. 1977년 김복당은 교단의 체제를 바꾸고 이미지 쇄신과 재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때 재단이사장에 동국대학교 교수 이종익(李鍾益)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총재 구속사건과 체제의 변모로 교세는 많이 침체되었으며, 지금은 전국에 100여 개의 법단과 40만 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성리심법(性理心法)의 전수에 있어서 도통전수의 운도관(運度觀)이 있다. 이것은 곧 도가 전해지는 연혁사이면서 예정된 도전(道傳)의 운명을 의미한다. 이 도전의 역사는 청양기(靑陽期)·홍양기(紅陽期)·백양기(白陽期)·흑양기(黑陽期)의 4기로 나뉜다고 한다. 청양기는 석가모니 부처가 나오기 이전 연등고불(燃燈古佛)이 천반(天盤)을 장악하고 복희씨가 도반(道盤)을 장악하였다가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역대 제왕에 도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홍양기는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000년 운기라 한다. 이때에는 유가의 도전이 없어지고 도가의 비밀도전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석가불이 천반을 장리하고 도반까지 인도하여 역대 불가에 서 장악하였으나 8대 달마에 이르러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에 전해진 천반과 도반은 중국 불가도전 7대에 다시 유가계의 서민(火宅)에게 전수되고, 다시 18대 궁장조사(弓長祖師)에 이르러 홍양기가 끝났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재는 백양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백양기의 도통은 1만 8,000년 동안이다. 이때는 미륵불이 천불을 장리하고 도운이 한국에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8대 궁장조사가 앞에서 말한 삼전인에게 도를 한국에 전할 것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 18대 궁장조사의 부인 손씨가 현재 홍콩에 있다고 하는데, 그녀를 자계(子系) 사모(師母)라 하여 숭배한다. 한국에 도운이 옮겨졌다는 것은 일종의 말세선민사상(末世選民思想)과 같은 것으로 이 땅에 미륵불이 출세하여 3,000명의 도통군자를 출생시켜 전 세계를 영도할 수 있는 중주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 없는 지상극락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본교에서는 도운전기로 보아 한국에 이미 미륵불이 출세하였다고 믿는 듯하나 비밀로 하고 있다.

교리는 5교의 진수를 종합하였다고 한다. 우선 '삼보비법(三寶秘法)'이 있는데 천기라 하여 교인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 만일에 이를 외부에 알리면 이는 천기누설이 되어 극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이 천기의 삼보란 현관(玄關), 구결(口訣), 합동(合同)을 말한다. 현관은 얼굴 가운데 양 눈썹 사이를 뜻하는데 가옥에서 현관을 통해 얻게 된다고 믿는다. 구결은 심법을 얻는 비어다. 합동은 불교의 결인(結印)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관은 안면 중간에서 불표(佛表), 중용(中庸), 십자가를 뜻하는 곳이다. 이곳이 비로소 마음이 소재하는 곳이며 상체의 주처라고 믿어 입신자가 명명상제(明明上帝) 앞에서 심법을 받아 신앙의 맹서를 할 때 점전사(點傳師)가 상제 앞에 놓여 있는 무극등(無極燈)에

서 지점봉(指點捧)에 불을 붙여 입신자의 현관을 지점한다. 구결은 ‘무태불미륵(無太佛彌勒)’이라는 5자로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밀교의 진언과 같은 것으로 신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를 외우면 곧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은 양손을 합장하여 자(子)와 해(亥)에 해당하는 손가락을 맞대고 쥐는 것이다. 이 자와 해의 시기에는 천하의 종교사상들이 이 일관도의 도에 결합된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동서양의 5대 종교 유·불·선·기·회의 교리의 진수를 통섭 일관하였으므로 무상(無上)의 대도라 과장한다. 그러나 이 혼합 종교의 교리적 주체가 무엇인가는 분간하기 어렵다. 본교의 교강이나 신앙 대상, 경전, 삼보비밀 등의 내용을 보면 5교 가운데 유·불·선 3교의 교의를 보다 우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본교의 종지는 유의 인의, 불의 자애, 선의 감응, 기독교의 박애, 회교의 성심수련이다. 이들 종교의 수련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성을 보존하는 데는 한 가지도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법칙이요, 본연의 심성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다같은 것이라 본다. 따라서 삼강이니, 삼청이니, 삼위일체니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의 도에서 벗어난 지로에 불과한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일관도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자가의 도법은 모든 각 교단이 나오는 근원이 된다고 하여 교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거부한다. 이에 따라 신앙의 목적도 과거 5교 성인이 말한 교법에서 하나의 도로 일관된 성리심법을 전수하여 개인적으로는 생전에 완전한 인격과 신체를 보전하게 되며, 죽은 뒤 영혼이 극락에 돌아가게 된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으로 창생을 제도하고, 진리로 만민을 교화하며, 정의로 세도를 만회한다는 것을 본교의 3대 강목으로 삼고 있다.

신앙 대상은 종교의 종합이라는 의미에서 상제신명(上帝神明)으로부터 제천신성(諸天神聖)과 제불제선성(諸佛諸善聖)을 모두 삼고 있지만 주신은 상제라 볼 수 있다. 현세의 구세불로서 미륵불의 출세 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단(법단)의 설치는 대개 명명상제를 주재신으로 하여 그 좌우에 관세음보살(남해고불)·미륵불·석가·공자·노자·단군 등 여러 불성 신선들을 봉안한다. 명명상제는 위패로 되어 “명명상제 무량청처(無量淸處) 지삼계시방 만령진재(至三界十方 萬靈眞宰)”라는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명상제란 우주 만물의 주재인 도의 원체이자 인간의 심법으로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위패로 하고, 그밖의 불·성은 형상으로 모신다.

신행은 상제를 비롯한 모든 신명과 제불·제선·제성에게 항상 경배를 드린다. 삼보를 절대적으로 믿으며, 5교의 교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수양 방법은 먼저 도단 앞에 참회와 반성을 하고 개과천선하는 것이며, 그 다음 유교의 존심양성법(存心養性法)과 불교의 명심견성법(明心見性法) 그리고 선교의 수심연성법(修心練性法)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때로는 선가의 조신화기법(調身化氣法), 불가의 선법, 유가의 정좌법(正坐法) 등을 병용하기도 한다. 신행상 금기와 재계가 있다. 재계는 청구(淸口)라고 해서 어육 주연(酒煙)을 금하지만 오훈채라 하는 자극성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과·마늘·담배·부추 등도 금한다. 이것들은 오행에 저촉되는 것으로 오장을 해롭게 한다. 이것은 부구(浮口)로서 오기수련(五氣修練)을 잘하면 죽은 뒤에도 시체가 생체와 같이 깨끗이 있다고 믿는다.

치성은 법단에 조석으로 소향례(燒香禮), 삭망에 대전례(大典禮), 연례적인 정기 치성이 있다. 이밖에 입신자의 도를 구하는 구도예가 있다. 치성을 할 때에는 소향, 헌다(獻茶)를 주로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제물을 갖추기도 한다. 법단에 예배하는 것을 고배(叩拜)라고 한다. 즉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는 것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고두(叩頭)란 사죄한다는 뜻이다. 대전례의 경우 집례자가 정숙하게 일고·이고·삼고라는 식으로 연창하는 데 따라 예

관 위에 업드려 수없이 절을 해야 한다.

1971년 12월 간소하게 고쳤다는 소향례식 절차를 보면 명명상제 앞 노명등(명명상제를 노명님이라고 함)에 점등하고 소향을 한 뒤 상제에게 오주위 구주위 소향이 끝나면 고두 배례를 한다. 고두 배례는 명명상제에게 열 번, 제천신성에게 다섯 번, 미륵조사에게 다섯 번, 신단국사에게 다섯 번, 5교 성인에게 다섯 번, 관세음보살에게 세 번, 활불사사존(궁장의 전신)에게 세 번, 월해보살(자손사모의 전신)에게 세 번, 단군에게 한 번, 사존(궁장)에게 한 번, 사모(손사모)에게 한 번, 진전원사(鎭殿元師)에게 한 번, 교화보살에게 한 번, 자기 선조에게 한 번을 함으로써 예식은 일단 끝이 난다. 그리고 나서 원참문(愿懺文)이라는 참회문을 외운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노명님의 대자대비를 구하는 뜻에서 백 번의 절을 하고, 명명상제에게 감사한다는 뜻에서 열 번 절을 하며, 제천신성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다섯 번 절을 드리면 의식이 끝난다.

예식을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대상 등에 수없이 고두 배례를 하는 것을 보면, 본교의 신앙 대상·교리·신행 등이 무엇을 주체로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음이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신행이 지극하면 신성이 감응하여 천명과 운도, 미래사까지 알려주는 신훈(神訓)이 내린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접령현상과 같은 것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신훈을 받으면 한자로 명문을 모래 위에 표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도가에서는 '비란선설(飛鸞仙說)' 혹은 '신필(神筆)'이라 하여 무사무욕한 어린이가 공부를 하면 신언을 말하는 구보(口報)가 나타나며 더 나아가 사판(砂板) 위에 글씨를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사람은 '천재(天才)', 받아쓸 수 있는 사람을 '지재(地才)'라 한다. 그런데 본교에서는 이것이 도통군자가 되는 징후라고 하여 포교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1912년 도통을 한국인에게 주라는 신훈을 받았다는 이기영(李起榮)이나 신종명(申鐘命) 등 수많은 천재가 나왔다고 한때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천재도 인재도 지재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당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평범한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다.

참고자료

오병무, 『춘천지역종교탐사기』(필사본), 1995.

이강오·오병무, 『한국신흥종교탐사기』(필사본), 1972~1995.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3.